



즉시 배포용: 2020년 12월 2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거실 확산'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을 강조하는 새로운 공익광고 공개

*뉴욕의 접촉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새로운 코로나19 사례의 70%가 가정 및 소규모
모임에서 발생*

[여기](#)에서 공익광고 확인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코로나19 "거실 확산(living room spread)"의 위험을 강조하는 새로운 공익광고(public service announcement, PSA)의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의 최신 접촉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새로운 코로나19 사례의 70%는 가정 및 소규모 모임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사례의 수가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본 공익광고는 뉴욕 주민들이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모임을 피하도록 장려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대규모 모임만이 확산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이제 말 그대로 가정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사회 활동에 대한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바꾸고 집에서 모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영향을 보고 있으며, 많은 수의 사례가 가정과 소규모 모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집에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있으니 안전 지역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나, 더이상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가정 내 확산을 해결하는 것은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며, 뉴욕 주민들이 현명함을 유지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뉴욕의 감염률은 미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에 속하며 이를 유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소모임을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손을 씻고,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과 같은 안전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주 초에 [주지사는 이번 겨울의 코로나19 퇴치에 대한 주정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공중 보건 전문가, 지방 정부 및 기타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개발한 계획은 지난 9개월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휴 시즌 이후 코로나 확진자 및 입원환자 증가 예상에 미리 대비하였습니다.

특히 겨울 계획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완화하고 뉴욕주 내 병원의 대응 태세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5가지 목표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뉴욕의 집중 소규모 집단감염 전략(Targeted Micro-Cluster Strategy)을 지속하고 강화하는 한편, 병원 수용인원 관리로 진료 역량 강화 및 동일 품질 보장(Managing Hospital Capacity to Enhance and Equalize Care),
- 검사 자원 및 가용성 증가 및 균형 유지(Increase and Balance Testing Resources and Availability),
- 학교의 안전한 운영 지속(Keep Schools Open Safely),
- 소규모 모임에서 바이러스 확산 방지(Prevent Viral Spread from Small Gatherings),
- 공평하고 안전한 예방 접종 프로그램 운영(Operationalize an Equitable and Safe Vaccination Program)을 시행합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